

도시 성매매 공간의 사회적 생산과 구성*

- 청량리 588 지역의 ‘미스방’ 사례 분석 -

서우석** · 안준희*** · 맹기돈**** · 윤나래**** · 김수진*****

Social Production and Construction of the Red Light District*

- A Case Study of ‘Missbang’ in Cheongnyangni 588, Seoul -

U-Seok Seo** · Junehui Ahn*** · Kidon Maeng**** · Narae Yun**** · SooJin Kim*****

요약 : 이 논문은 서울의 대표적 집창촌인 청량리 588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 성매매 공간의 형성·유지·변화를 둘러싼 사회문화적·역사적·이데올로기적 배경을 살펴보고, 특히 내부 구성원들의 사회적 실천에 의해 매개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미스방’이라고 불리는 유리방 형태의 매춘 공간에 초점을 맞추어, 첫째 이 공간의 출현을 둘러싼 사회문화적·기술적·이데올로기적 배경을 탐색하고, 둘째 이를 둘러싼 내부자들의 이용 방식, 경험, 상징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미스방’이라는 공간의 생산에 588 일대의 미시적 변화, 생활공동체로서 사회문화적 특성들,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소비 방식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588의 내부자들은 이렇게 생산된 공간을 수동적으로 수용하기보다, 호황의 상징, 경쟁과 상품화, 관광과 글로벌라이제이션의 공간으로 재구성·재해석하고 있었다. 이 논문은 집창촌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을 시도하여 사회사적 연구에 집중되어 왔던 국내 집창촌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또한 로컬라이제이션, 관용의 지역으로서 공간성, 소비문화의 변화에 대해 논구하여 성매매 공간에 대한 기존의 사회과학적 논의를 확장시키고 있다.

주제어 : 집창촌, 청량리 588, 유리방, 매춘, 성매매

ABSTRACT : This article examines the sociocultural, historical and ideological backgrounds surrounding the formation, maintenance and changes of ‘Cheongnyangni 588’, a representative red light district in Seoul, focusing especially on insiders’ experiences. Adopting Low(1996)’s theoretical framework of the social production and social construction of urban space, it attempts the spatial and sociocultural analysis of the space called ‘missbang,’ a type of window brothel in Cheongnyangni 588. The sociospatial analysis shows that the social production of ‘missbang’ is closely related to the micro-level historical changes of Cheongnyangni 588,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such as communal culture, and consumerism in late capitalism. Furthermore, the analysis indicates that insiders, through social exchanges, memories and daily use of the of ‘missbang,’ reconstruct and reinterpret it as a space of prosperity, competition, commercialization and globalization.

Key Words : red light district, window prostitute, sex industry, Cheongnyangni 588, urban space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1-AM0027).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Urban Sociology, University of Seoul)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Urban Sociology, University of Seoul),

교신저자(E-mail: jhahn@uos.ac.kr, Tel: 02-6490-2741)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박사과정(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Urban Sociology, University of Seoul)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석사(M.A., Department of Urban Sociology, University of Seoul)

I. 서론

이 논문은 도시 성매매 공간의 형성, 유지, 변화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역사적, 이데올로기적 배경, 특히 이러한 과정이 내부구성원들의 사회적 실천에 의해 어떻게 매개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의 대표적인 성매매 공간 중 하나인 청량리 588 지역을 중심으로, 588의 형성과 변화를 가능하게 한 사회문화적, 이데올로기적, 기술적 요소와 588이 내부구성원들의 일상적 실천에 의해 새로운 상징적 의미를 지닌 공간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한국 도시의 성매매 공간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사회사적인 접근을 통해 집창촌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작업(오유석, 2009; 김희식, 2011, 2012)과 집창촌에 관한 관찰 조사를 통해 집창촌의 공간적, 사회적 분화를 기술(서정우, 2011; 진양교, 1998)하는 것에 집중되어 왔다. 집창촌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작업은 근대 이후에 성매매가 변화되고 집창촌이 형성되는 과정을 탐색(강정숙, 1998; 김종근, 2011; 홍성철, 2007)하거나 성매매와 관련한 정책변화와 정책효과를 분석(박정미, 2011; 김윤희, 2006)한다. 특히 지역 사례조사를 통해 사회사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오유석(2009)은 문헌 고증을 바탕으로 청량리 588의 역사를 시계열적으로 추적하면서 성매매에 대한 국가 정책 변화와 도시성장 과정이 미친 영향을 통해 집창촌 변화의 궤적을 제시하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김희식(2011; 2012)은 미아리 텍사스촌과 인천의 옐로우하우스촌의 사례를 분석하였는데, 집창촌 종사자들을 사회적 약자로 바라보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사회에서 국가 권력의 집행이나 도시공간의 개발 과정에서 이들 약자들이 어떻게 배제되어

왔고 이에 대한 적응의 노력으로 현재의 집창촌을 형성하게 되었는지 집창촌이 도시 공간에서 자리 잡는 과정을 해석하였다.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한 대표적인 연구인 진양교(1998)는 청량리 588에 대한 문헌 고찰 외에도 참여관찰의 방법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여 한국 집창촌 연구의 선구적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도시공간 활용이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청량리 588 내부의 공간적 분화와 건축물의 활용을 유형화하였으며, 588 성매매 관련 종사자들에 대해 개관하고 성매매 여성 한 명의 생애사를 기록하고 있다. 현장조사에 기반을 둔 또 다른 연구인 서정우(2011)는 광주 대인동의 사례를 바탕으로 집창촌의 다양성에 대한 ‘매춘 지리학’을 보여주었다. 관찰을 바탕으로 집창촌의 낮과 밤을 대조하여 기술하고, ‘휘파리’와 유리방의 차이와 공존을 통해 성매매 활동의 양상이 가지는 다양성을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은 한국 집창촌의 사회나 공간적 분화 양상을 보여주며, 한국의 성매매 공간 연구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집창촌 연구들은 주로 문헌과 공간에 대한 관찰에 의존하여 집창촌 내부자들의 다양한 시각과 목소리에 주목하지 못했다. 집창촌에 대한 사회사적 연구의 경우 문헌에 의지하여 내부자들이 기억하고 구성해내는 집창촌의 미시적 역사를 다루지는 못했으며, 현장조사에 기반을 둔 연구의 경우도 집창촌의 내부적 다양성을 다루는데 있어 실제 성산업 생태계의 주요 주체들이 집창촌이라는 공간의 유지·변화·구성에 어떻게 참여하며, 공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등의 내부자적 시각의 포착에는 무관심하였다. 예를 들어, 서정우(2011)의 광주 대인동 사례 연구는 관찰과 인터뷰에 기반하고 있지만, 관찰은 집창촌의 낮과 밤의 가시적 경관을 묘

사하는 것에 머물고 있으며, 인터뷰도 실제 성매매 산업 종사자가 아닌 대안동 주민과 상인, 그리고 성매매 여성 지원 단체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로 인해 연구는 성매매 공간 내부의 사회적 분화, 권력 관계 등 집창촌 연구의 중요한 측면을 논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매매 공간의 내부적 역동이나 성매매 산업 종사자들의 시각은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측면에서 진양교(1998)의 연구 또한 현장 연구를 통해 588 공간을 분석한 선구적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여성의 다수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성매매 생태계에 참여하는 여성을 제외한 다수의 종사자들, 예를 들어 포주, 대부업자, 숙박업자 등의 시각을 다루지 못하였다.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한국의 성매매를 다루고 있는 연구들도 생태계 내부의 다양한 주체들을 포괄하지는 못하였다. 여성들이 성매매에 참여하는 요인(김연주, 2010; 변정애, 2004)을 분석하는 여성주의적 입장의 연구들과 그들의 재사회화의 효과와 지원방법을 다루는 연구들(최수연, 2012)도 비슷한 성격을 가진다. 또한 한국 집창촌이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는 점에서 진양교(1998)와 같은 선구적 연구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만,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 이후 나온 연구들의 관심은 대체로 성매매 실태(김은경, 2004)나 성매매특별법의 정책적 효과(홍현주, 2013)로 한정되는 경향을 보였다.

국내 사례를 다룬 집창촌에 관한 기존 연구들의 또 다른 특성은 그동안 집창촌이나 성노동과 관련하여 진행된 해외 사회과학의 연구 성과들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집창촌에 관한 사

회과학 연구들은 초기 도시공간으로서 집창촌이 지니는 특성에 관한 설명(Ashworth, 1988; Park, 1952)부터 지구화와 정보화가 집창촌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Weitzer, 2014; Sabat, 2012)까지 집창촌의 형성·유지·변화와 관련된 사회문화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집창촌이나 성노동과 관련된 사회과학적 논의는 사회사적인 접근과 집창촌의 공간적 분화양상에 초점을 맞춘 국내의 성매매 공간에 관한 연구들과 연결되지 못하였다.

이 논문은 집창촌에 관한 기존 사회과학적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청량리 588의 형성과 변화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제도적, 이데올로기적 배경을 분석한다. 이와 함께 기존 연구가 주목하지 못한 집창촌 내부자들의 다양한 시각과 목소리를 기술하여 588의 변화가 내부자들의 실천에 의해 어떻게 매개되는지를 살펴본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내부자들이 '미스방'이라고 부르는 유리방 형태의 매춘 공간에 주목한다. '미스방'은 성매매 여성이 투명한 유리에 전시되는 유리방 형태의 성매매 업소를 일컫는 용어로, 미스방은 588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가장 중심적인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내부자들의 인터뷰에서 588의 형성과 변화와 관련하여 가장 빈번히 언급되는 공간이 미스방이었으며, 성매매업과 관련된 일 환경, 예를 들어 성매매 여성들의 일과 관련된 일상적 경험에 관한 진술에서도 가장 중심적으로 이야기되는 공간 또한 미스방이었다¹⁾. 이러한 '미스방'이라고 불리는 유리방 매춘은 집창촌에 관한 기존의 사회과학 연구에서도 전 지구화, 정보화 등과 관련하여 집창촌의 변화에 있

1) 청량리 588의 핵심 공간으로서 미스방은 우리나라 다른 집창촌에서도 나타나는 공간이며, 이 연구의 미스방에 대한 분석은 다른 집창촌의 사례를 이해하는 데도 유의미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분석되었다(Aalbers, 2005; Hubbard and Whowell, 2008).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588에서 '미스방'의 출현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기술적, 이데올로기적 배경과 이 공간을 둘러싼 내부자들의 이용방식, 경험, 상징적 의미 등을 분석하여, 이에 투영된 588이라는 성매매 공간의 형성과 변화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선행연구를 보완하려는 이 논문의 시도는 588 공간에 대한 접근과 사회사적 고찰을 바탕으로 이 공간의 형성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의 인식과 경험을 종합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논문에서는 Low(1996)가 공간적 실천을 분석하기에 유용한 틀로 제시하고 있는 '공간의 사회적 생산과 구성(social production and construction of space)'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Low는 도시 공간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 환경의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기술적, 요소를 일컫는 '공간의 사회적 생산'과 행위자들의 일상적 실천에 의해 공간이 특정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 장소로 변화하는 과정을 일컫는 '공간의 사회적 구성'이라는 두 가지 층위를 사용하여 설명하는 것이 유용함을 주장한다. 이 논문에서 시도하고 있는 기존 사회과학적 연구 성과들을 기반으로 한 청량리 588의 형성과 변화의 사회문화적, 기술적, 이데올로기적 배경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 과정이 집창촌의 다양한 내부구성원들의 일상적 실천에 의해 매개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은 각각 Low가 제시하는 공간의 사회적 생산과 공간의 사회적 구성이라는 분석적 틀에 의해 효과적으로 설명가능하다.

이 논문의 배경이 되는 현지조사는 2014년 12월

부터 2015년 3월까지 청량리 588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조사는 초기 588의 성매매 생태계에 오랫동안 참여해온 주요정보제공자들의 도움으로 시작되어, 이후 연구진들이 588의 다양한 내부자들과 라포를 형성하면서 진행되었다. 조사의 구체적인 방법론은 588 지역에 대한 참여관찰과 내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였다. 참여관찰은 밤, 낮 시간대의 성매수자와 성매매자 사이의 다양한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 성매매 업소 내부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관찰, 미용실, 포장마차, 슈퍼마켓 등 성매매업 관련 주변시설에 대한 참여관찰, 성매매 업주나 기타 성매매 업소 관련 종사자들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참여관찰로 이루어졌다. 인터뷰는 성매매 여성, 현재나 과거의 성매매 업소 업주, 일수업 종사자, 지역민, 그리고 미용실, 포장마차, 식당, 슈퍼마켓 등 기타 성매매업 관련 주변시설 종사자들 총 17명을 대상²⁾으로 시행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소개의 소개를 받아 연구대상을 선정하는 스노우볼(snowball) 표집 방식을 사용하여 섭외되었으며, 인터뷰 시간은 대상별로 평균적으로 1~2시간이었으며, 필요한 경우 2~3회의 추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의 주요 질문 내용은 성매매 거래 방식, 수입, 영업 전략, 내부의 사회적 관계, 일 환경 등 588의 내부 생태계, 그리고 588의 역사, 특히 인터뷰 대상자들의 생애사나 일과 관련된 이력이 588의 역사와 교차하는 지점에 대한 구술 등으로 이루어졌다. 참여관찰과 인터뷰와 함께 588 지역에 대한 신문기사, 학술문헌, 사진자료 등의 문헌 조사와 588에 대한 온라인커뮤니티에 조사를 병행하여, 인터뷰 내용과 참여관찰 자료를 확인하고 보충하였다.

2) 조사대상자들은 모두 현재나 과거 588의 생태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주체들이다. 다만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터뷰 대상의 현재와 과거 이력, 현재 직업은 논문에서 구체화하지 않았으며, 본문에서는 성매매 여성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역민'으로 통칭하였다.

본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2장에서는 집창촌에 대한 사회학, 지리학 등의 사회과학 연구들을 검토한다. 특히 집창촌의 변화를 설명하는 세 가지 연구 흐름을 제시하고, 이후 유리방 매춘을 중심으로 다른 연구들을 소개한다. 3장에서는 588의 역사적 변화를 내부의 공간적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후 4장에서는 '미스방'의 형성과 변화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기술적, 이데올로기적 배경과 이 공간이 내부자들의 일상적 실천에 의해 새로운 상징적 의미를 가진 공간으로 재해석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II. 이론적 논의

1. 집창촌에 대한 이해

집창촌에 대한 사회과학적인 논의는 초기에는 집창촌의 지리적 공간이 가지는 특성에 초점을 맞추다가 근래에는 다양한 주제들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성매매 활동 자체가 과거에 비해 다양화되었고, 지구화(globalization)와 정보화나 도시 공간의 활용이 다양화된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집창촌을 설명하는 다양한 논의들을 보면 전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흐름을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집창촌이 가지는 독특한 공간적 성격이다. 초기 도시사회학 논의에서는 집창촌이 도시의 취락공간 발생과 연관되어 논의되었다. 시카고학파의 Burgess(1928)가 제시한 주거분화의 동심원 연구에 따르면, 중앙상업지구(central business district)가 전이지역(zone of transition)으로 확산되면서 흑인 슬럼과 함께 낡은 주택들이 나타나는 데 이런 공간들이 성매매 활동에 이용될 가능성이

커진다. Park(1952)는 성매매 공간과 같이 도시에 서 반사회적이거나 비도덕적인 행위가 용인되는 '모럴 지역(moral region)'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지역의 존재를 정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자연적인 현상의 일부로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Aalbers and Sabat(2012)는 '모럴 지역'의 논의를 바탕으로 집창촌에 대한 기능론적 분석을 제시하였다. 존중받을 만한 여성(respectable women)을 존중받지 못할 여성(disrespectable women)으로부터 분리한다는 점에서 '모럴 지역'의 의미는 정당화되었다. 이를 통해 성매매 여성을 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 여성의 섹슈얼리티도 통제된다. 존중받지 못할 여성이 존재하는 구역은 '관용의 지역(zone of tolerance)'으로 인정받게 되며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집단들의 공간으로 활용되면서, 성매매 여성뿐만 아니라 노숙자, 마약중독자, 동성애자 등의 존재가 용인되는 지역이 된다.

집창촌의 공간적 특성은 Ashworth et al.(1988)이 집창촌의 유형을 구분하면서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이들은 서구의 여러 도시들에 대한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집창촌의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유형은 해당 지역의 취약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합적 기능의 집창촌이다. 매춘은 다른 토지 이용과 공존하며 집창촌이 모습을 뚜렷하게 드러내면 강력하게 통제된다. 둘째 유형은 외국의 부유층까지 상대하는 집창촌이다. 집창촌이 단일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매춘은 다른 엔터테인먼트와 연결되고, 네온으로 공간이 가시화되며, 관련 활동에 대한 통제는 약한 편이다. 셋째 유형은 지역의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집창촌으로 도시 전역에 퍼져있으며, 매춘이 다른 토지 이용과 공존한다. 집창촌의 존재를 은밀하게 드러내면서 집창촌

의 유지와 관련된 활동들이 넓게 퍼져있고, 최소한의 통제를 받는다. Ashworth et al.(1988)의 연구 발표 20년 후 Hubbard and Whowell(2008)은 그 동안의 집창촌 연구 성과와 실증 분석을 통해 파리, 암스테르담의 변화를 추적하여 성산업의 변화와 지구화의 영향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Ashworth et al.(1988)의 유형 구분이 지속적으로 유용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였다.

최근에는 도시재생이 집창촌의 공간적 속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되고 있다. 집창촌의 이전과 이를 둘러싼 사회적 법제도적 갈등은 근본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의 성격을 가진다(Bernstein, 2005).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경우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예술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Serino, 2012). 특히 리처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의 '창조도시' 담론에 영향을 받아 집창촌의 문화적 가치를 활용하려는 노력이 전개되면서 예술, 패션과 결합된 사업이 수행되었다.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지배성(governmentality)' 논의처럼 도시경쟁력 담론이 집창촌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생산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공간적 성격을 변화시키고 있다(Zuckerwise, 2012).

둘째, 성매매 활동에 대한 규범적 판단과 법적 대응의 문제가 집창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집창촌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차단하려는 노력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아왔다. 집창촌이나 성매매 활동과 공간 활용이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 현상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근대 도시의 성장 속에서도 성매매 여성의 존재는 거리의 만보객들에게 시각적 자극을 제공하는 유혹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규제의 대상이 되었다(Hubbard, 2013). 매춘이 가시화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규제가 특히 거리매춘

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많은 도시들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어느 정도 보편적이기는 하지만 성매매에 대한 법적 규제에는 상당한 다양성이 존재한다. Brants(1998)는 성매매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가지는 양면성을 지적하면서 성매매에 대한 법적 입장을 금지적(prohibitionist), 폐지적(abolitionist), 규제적(regulationist), 합법화적(legalitionist) 시각으로 대별하였다. 학술적인 차원에서는 Weitzer(2009)가 성노동을 바라보는 이론적인 시각을 억압패러다임(oppression paradigm)과 강화패러다임(empowerment paradigm)으로 구분하고 자신의 입장을 다면패러다임(polymorphous paradigm)으로 제시하였다. 억압패러다임은 성노동이 근본적으로 여성에게 억압적인 요소를 갖고 있으며, 착취적인 요소를 포함한다는 입장이다. 억압패러다임은 집창촌에 대한 규제를 주장하는 사회의 시선을 대변하는 의의를 가지나, 경험적인 실증에 의한 주장이 아니라 이념적, 도덕적인 주장이라는 점에서 취약하다. 반면 강화패러다임은 성노동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 모두가 이익을 얻으며 성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성노동과 다른 서비스 노동 사이의 유사성을 강조한다. 다면패러다임은 성노동의 다양성을 강조한다. 성노동의 종류를 콜걸, 에스코트, 유곽노동자, 바 혹은 카지노 근무, 거리매춘(Streetwalker)으로 구분하고 관련 특성을 구분하였다. 성노동 중에는 직접적인 성적 접촉을 갖지 않는 다양한 행위들이 포함된다(Hubbard, 2013). 성노동 여성의 활동 참여나 삶에 미치는 영향도 상이하게 나타난다. 특히 거리매춘과 실내매춘의 차이가 큰데, 호혜적 관계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실내매춘과 달리 거리매춘에서 여성은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법적·제도적 규제의 이면에는 주변 도시 주민들의 반응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프랑스의 경우 집창촌 인근 주민들의 반응이 매춘에 대한 도시정책과 법적 규제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Mathieu, 2011). 집창촌 인근 주민들이 인신매매의 대상이 된 여성들에 대한 동정과 조직화된 범죄의 위협이 확산되는 것에 대한 위협을 느꼈다. 이에 따라 양면적 규제 정책이 수행되었다. 인신매매의 위협에 놓인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는 반면, 매춘이 도시공간에서 가시화되는 것을 규제하여 음성화시켰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성매매 여성을 지원하는 세력도 양면화되었다. 한편으로 성매매를 성노동으로 양성화시켜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성매매 여성을 성노예로 파악하여 근절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특정 소수 집단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도 제기되었다. 게이 목욕탕(gay bathhouse)의 경우, 과거 위험한 공간으로 인식되었으나 시드니 사례에서 보면 동성애 집단의 에메니티로서 인정을 받아 정착하는 경우가 나타났다(Prior, 2008).

셋째, 정보화, 지구화, 성적 다양성 증가로 촉발된 성산업의 변화가 집창촌의 최근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다. 정보화는 성매매의 사이버화를 가져오면서(Zook, 2000), 성산업의 성장을 가져왔다. 이 때 집창촌과 가지는 관계는 복합적이다. 한편으로 성산업의 온라인화는 전체적으로 성산업의 규모를 증가시키면서 집창촌이 집약적 공간으로서 가지는 중요성을 약화시켰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집창촌이 가지던 은밀한 성격을 온라인에 노출시켜 유인되는 수요자의 범위를 확대시켰고,

이에 대한 정보를 구체화시켰다. 특히 이와 같은 선전효과는 지구화의 영향과도 서로 연관된다.

지구화가 미친 영향은 공급과 수요의 모든 측면에서 변화를 가져왔다. 공급 측면에서는 이민자 유입이 집창촌의 성격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동유럽 몰락과 아프리카, 아시아의 난민 유입이 성매매로 이어지며 인신매매 문제와 연결되었다. 벨기에 안트베르프(Antwerp)시의 Schipperskwartier 구역의 사례에서 보면, 외국인 출신 성매매 여성의 유입이 기존 성매매 여성의 조합 결성을 촉진시켰으며, 그동안 지역에서 성매매와 거주민이 공존했던 규칙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고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Loopmans and van den Broeck, 2011).

수요 측면에서는 섹스 관광의 증가가 중요한 변화 요인이 되었다. 특히 섹스 관광에 대한 논의에서는 섹스 관광을 관광의 일탈적 사례로 보는 시각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면서(Ryan and Kinder, 1996), 섹스 관광이 가지는 경계행동(liminal behaviour)으로서의 성격이 관광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사회적 교제 욕구의 충족, 환상의 충족, 일상으로부터 벗어난 긴장 해소를 위한 새로운 기회의 추구 등에서 성매매 활동과 관광은 공통점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지구화의 영향은 지역의 제도와 기관을 매개로 현실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해석할 수 있다(Loopmans and van den Broeck, 2011). Wonders and Michalowsk(2001)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쿠바 아바나의 섹스 관광을 비교하면서 섹스 관광의 성장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지역별 차이가 크다는 특성을 가진다

는 점에서 글로벌리제이션(globalization)의 성격을 강조하였다.

또한 성적 소수자나 성적 취향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성매매가 다양화되었다. 과거의 전통적인 남녀 성역할에 따른 성매매 이외에도 게이나 트랜스젠더처럼 남성이 성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증가하였다(Hubbard and Whowell, 2008). 성산업의 다양성 증가와 포르노 산업의 성장으로 매춘보다 성노동(sex work)이라는 표현의 수용이 증가하였다. 성산업을 포함한 성인유흥(adult entertainment)에 대한 도시 규제로 성인유흥의 교외화, 사이버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성인유흥에서 산업으로 성장하고 합법 영역으로 들어오는 활동들이 증가하였다(Ryder, 2004).

이상에서 살펴 본 세 가지 흐름이 각기 독립하여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같은 법적 규정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적용하는지, 상대적으로 어느 사회경제적 집단 거주 지역에 위치하는가에 따라 집창촌의 공간적 특성이 달라진다. 이러한 점에서 집창촌의 지리학은 도시의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 Weitzer(2014)는 벨기에 브뤼셀과 앤트베르프의 집창촌을 비교했는데, 중동계 이민자 집단이 대부분 지역 주민인 브뤼셀 집창촌에서는 이들의 불만이 잘 수용되지 않는 반면, 백인 중산층이 지역 주민인 앤트베르프 집창촌에서는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 집창촌의 관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집창촌의 지리적 여건이 도시정부의 집창촌 관리 방식, 참여 주체들의 역할, 공간 질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었다.

2. 유리방 매춘을 설명하는 요인

교통의 발달이나 교외화와 같은 변화가 도심부

의 집창촌을 약화시키지만 집창촌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비교쇼핑(comparative shopping)의 제공 가능성, 다른 엔터테인먼트 기능과의 인접성, 야간 경관의 자극적인 분위기, 관광객에게 선사하는 관람 기능 등의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Ashworth et al., 1988). 이러한 이점은 특히 유리방 매춘(window prostitution)에서 잘 드러난다.

유리방 매춘은 유럽의 대표적인 성매매 도시인 암스테르담의 집창촌에서 시작되었다. 1900년대 초 호객행위를 금지하는 시 정부의 정책이 유리방 매춘 출현의 배경이 되었다. 유리방 매춘의 모습은 그 후로도 변화를 겪는다. 1960년대만 해도 작은 창문 너머에 앉아 남성을 기다리는 모습이었으나, 오늘날에는 큰 유리창에 전신을 드러내며 서 있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성매매 여성의 전신이 드러나면서 유리방 매춘은 자체로서 시각적 소비의 대상이 되어 도시관광의 매력 요인이 되었다(Sabat, 2012).

또한 유리방 매춘이 성매매의 글로벌 표준처럼 확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반적인 소비문화 변화와의 유사성이 파악된다. 유리방 매춘은 미국에서 발달한 쇼핑몰처럼 소비자의 소비활동을 진작시키는 구조를 갖고 있다. 깨끗한 거리, 낮은 범죄율, 네온 분위기, 여성들을 상품처럼 전시하여 선택할 수 있는 윈도우 등 소비문화 변화와 연관된 구조를 가진다. 또한 섹스클럽, 섹스쇼, 섹스용품 판매, 포르노샵, S&M 의류 등의 관련 산업과 함께 관광객 소비를 유인한다(Wonders and Michalowski, 2001).

유리방 매춘은 성산업의 '맥도널드화'를 보여주는 요소이다. 성산업의 맥도널드화는 성노동에 대한 일종의 테일러주의화인데, 성노동을 표준화시키고 효율성을 증진시킨다. 이와 같은 성노동에

대한 맥도널드화의 적용은 가능하면서도 한계를 가진다. 성노동이 감정노동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효율성, 생산성, 신속한 소비의 가치가 추구되는 맥도널드화가 진행된 반면, 다른 한편 감정노동(emotional labor)의 특성을 살리고 자기만의 고유한 체험을 갖기를 원하는 점이 존재한다. 맥도널드화 사례로서 유리방 매춘을 볼 때, 특히 주목할 점은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성매매 활동이 상당한 예측가능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서울을 포함한 많은 도시들에 유리방 매춘이 생겨났으며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유리방 매춘을 세계적인 표준화 사례로서만 바라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글로컬라이제이션 사례로서 유리방 매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유리방 매춘이 다양성을 갖게 되는 데 미치는 정책적·지리적 환경의 영향으로, 다양한 공간 활용 전략이 실제 유리방 매춘에서 작동한다는 점을 볼 수 있다(Hubbard and Sanders, 2003). 드 세르토(de Certeau, 1984[1980])가 제시한 전술과 전략의 구분, 혹은 르페브르(Lefebvre, 1991[1974])가 제시한 규정된 공간과 실제 생활된 공간 사이의 차이가 중요하게 나타나면서, 정책 당국의 규제와 실제 성산업 관련자의 공간 활용 사이의 차이가 부각된다. 또한 사회적 관계의 하나로서 성매수 남성과 성매매 여성 사이의 관계가 가지는 다양성을 볼 수 있다. “Big Sister is Watching You!”(Aalbers, 2005)라는 제목에서 시사하듯이, 성매매 여성은 성매수 남성의 선택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들이 선호하는 남성을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끝으로 성노동의 합법화가 가져온 변화로서 내부 분업관계나 권력 관계의 변화를 수반하게 되었

다는 점도 유리방 매춘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암스테르담에서 유리방 매춘이 2000년에 합법화되는 과정에서 매춘의 ‘정상화’를 추구하고 성매매 여성의 보호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을 포주의 피고용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가로 보는 관점이 등장하였다(Aalbers and Deinema, 2012). 포주가 성매매 여성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숙박, 보호 등)로서의 역할이 강조된 것이다. 성매매 여성 스스로가 좀 더 주체적으로 성매매 활동 전반을 관리한다. 성매매 여성의 매력과 능력에 의해 성매매 활동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유리방 매춘의 구조에 의해 성매매 여성과 포주의 관계 사이에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III. 청량리 588 일대의 변화 - 미스방을 중심으로

이 장에서는 미스방의 사회적 생산과 구성에 관한 본격적인 고찰에 앞서 청량리 588의 역사적 변화를 내부의 공간적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는 588의 공간적 변화를 태동기·호황기·쇠퇴기의 세 시기로 구분해서 기술하여, 이 논문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588의 형성과 변화를

〈표 1〉 청량리 588지역의 시대구분과 특징

구분	타 상권과의 관계	중심 이미지	대표 상권
태동기 (1960~1970년대)	연계	교통, 유흥	유흥, 소비, 교통, 성매매업, 숙박업
호황기 (1980년대~2004년)	지배	매춘	교통, 성매매업
쇠퇴기 (2004년 이후)	고립, 배제	소비	교통, 소비

둘러싼 사회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살펴본다. 특히 588의 공간적 이력을 살펴보는데 있어 588과 이를 둘러싼 주변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여 588의 변화 과정이 보다 거시적인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요소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주목하였다.

1. 청량리 588 지역의 태동기 (1960~1970년대)

해방 이후 교통의 중심지였던 청량리에는 다양한 목적의 상업 공간들이 혼재했다. 청량리역은 경원선, 중앙선, 경춘선의 3개 철도노선의 시발점이 되었고 원산, 경주, 춘천 등지의 물품과 인력이 서울로 들어오고 나가는 관문이었다(서울시사편찬위원회, 1979; 진양교, 1998). 용두동과 마장동 일대에 국토의 동부지역을 연결하는 시외버스터미널이 1960년대 후반에도 소재하여 교통입지에 따른 여건상 상업과 업무 기능이 크게 확장되었다(진양교, 1998). 당시 청량리역 주변에는 수많은 식당과 숙박시설이 자리를 잡고 있었으며 기차를 타고 올라온 사람들이 머무는 숙박시설이 넓게 퍼져 있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전당포, 옷가게, 대장간, 제재소 등 다양한 업종이 혼재한 지역이었다.

무엇보다도 이 시기의 청량리는 유흥시설 밀집 지역이었다. 1960~1970년대 청량리역 주변부는 대왕코너(이후 맘모스백화점), 대왕극장, 시대극장, 인디안, 맘모스나이트 등 유흥시설이 밀집하였다. 또한 남지다방, 동산다방 등과 함께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소비 중심지로서의 정체성을 형성



〈그림 1〉 청량리 588 태동기의 청량리

하고 있었다. 지역민의 구술이나 각종 문헌 자료에 따르면 청량리역 일대에 유흥, 숙박, 윤락시설이 혼재하였지만 당시의 청량리는 유흥시설(상권)이 대표성을 지닌 지역이었다³⁾. 청량리역 일대는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지역상권이 발달하였으며, 숙박과 윤락 시설은 청량리 일대 유흥가 공간에 부수적 형태로 연계하면서 함께 성장하였다.

청량리 지역에 사창이 시작되는 것은 일제강점기 중기 이후로 추정되는데, 본격적으로 유평이 형성된 것은 휴전 직후 미군부대가 청량리역 인근에 주둔하면서부터인 것으로 보고된다(윤영효, 1994; 진양교, 1998). 이후 서울의 대표적인 성매매 집결지였던 종삼(종로3가)이 1968년 철거되었고 성매매 여성들이 대거 청량리역과 미아리 등으로 흘러들면서 588번지 일대에 성매매 업소가 급증하였다. 이 시기 588 일대 성매매 업소가 늘어나기 시작한 반면, 청량리역 일대에서 교통과 유흥상권의 지배력은 약화되고 있었다. 이는 1970~1980년대 강북도심난립의 해결책으로 고속버스터미널과 유흥업소 이전 정책이 펼쳐진 것과 관련이

3) 1980년대 청량리 일대, 유흥상권의 증거는 유흥업소의 위치와 상호 등을 구체적으로 말한 지역민의 구술에서도 드러난다.

"~에서 여기와서 놓고 그랬어요. 좀 돈 있으면 강남 가서 놓고 아니면 여기 와서 노는데..."(지역민 A의 구술)

"관계없죠. 지금도 없잖아요. 왜냐면 '부림호텔' 건너편 3층짜리 건물, 거기 '인디안'이라고 나이트클럽이 있었어요. 그리고 '맘모스' 호텔나이트 거기도 되게 유명했어요"(지역민 B의 구술)

있다. 당시 서울시는 강북 도심에 유흥업소 허가를 금지하고, 경부고속도로 주변 체비지를 유흥업소들에게 팔아 고속도로 옆 신사역 주변에 앉히면서 1972년부터 신사동에 집중적으로 유흥시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또한 1980년대에는 강남이나 상봉으로 교통인프라와 유흥시설이 분산되면서⁴⁾ 청량리 588 일대의 유흥업소는 감소하기 시작했다.



〈그림 2〉 청량리 588 호황기의 청량리

2. 청량리 588지역의 호황기 (1980년대~2004년)

1980년대 청량리 일대에서 청량리 집창촌은 독립적이고 지배적인 상권으로 호황을 누리게 된다. 1980년대 청량리 일대의 유흥업소 상권이 강남으로 이전하면서, 청량리 로터리 맘모스 호텔 뒷골목 일대와 성바오로 병원 뒤쪽 여인숙촌 일대까지 성매매 업소가 확장되었고, 588은 서울에서 가장 큰 홍등가로 자리 잡는다⁵⁾. 이에 1982년 1월 야간통행금지가 전격 해제된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 지역민들은 당시 '펍투'라고 불리는 호객꾼들이 청량리 심야극장과와 청량리역까지 나와 청량리 588 호황기의 청량리 성매매 호객행위를 했다고 구술한다.

호황기의 미스방은 도로를 기준으로 '2층갈레', '부림골목', '가운데골목'의 명칭으로 구역을 나눈다. '2층갈레'는 2층 형태의 가옥구조로 철도부지와 나란히 늘어선 구역을 일컫는다. '2층갈레'는 청량리588을 대표하는 구역으로 3~4평 정도의

작은 건물로 공간이 협소하여 홀과 영업방이 공존하기 어려워 1층은 홀, 2층은 영업방으로 확장하여 영업한 곳이다. 호황기 때에는 롯데영플라자 지상 주차장에서 답십리 굴다리를 잇는 약 300m의 도로를 중심으로 양쪽에 늘어선 있었다. '부림골목'은 부림호텔에서 시작하는 골목으로 롯데백화점에서고 구술한다. 좌측으로 고개를 돌리면 바로 보이는 길이다. '가운데골목'은 부림골목과 한 블록을 두고 평행하게 놓여있는 골목으로 가나안 교회 건물 정문에 위치한 구역이다.

청량리 588 내부자들은 '2층갈레'가 있던 시절이 청량리 588의 호황기라 말한다. 마주보고 있는 미스방 사이의 도로에 사람들이 어깨를 치며 지나갈 정도로 늘 상황이었다. 청량리 588일대 미스방은 '청량리 청과물 도매시장'과 '답십리 굴다리 지하차도(이하 굴다리)'를 연결하는 도로를 마주보며 늘어선 형태로 확장됐다. 애초의 588번지 이외에 622번지와 629번지까지 확장되어, 버스가 다니

4) 1970년대 이후 강남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강북에서 강남으로 인구 분산을 위해 지하철 2호선, 고속버스터미널 등을 신설·이동 하였다. 또한 강북도심에 유흥업소의 허가를 금지하고 경부고속도로 주변 체비지를 유흥업소들에게 팔아 유흥상권을 강남지역으로 이동시켰다(전강수, 2012; 노컷뉴스, 2013.6.24.).

5) 청량리 588 지역에 대한 신문기사는 1980년대 이전까지 절도나 폭력 등과 같은 범죄가 주를 이뤘으나, 1980년대 이후에는 주로 '윤락가 단속', '여성 납치, 매매', '매춘산업' 등을 담고 있다. 1984년 기사는 맘모스호텔 뒷골목 일대와 성바오로병원 뒤쪽 여인숙촌 일대에 200여 개의 윤락업소가 위치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동아일보, 1984.07.27.).

는 대로변과 골다리 부근까지 성매매 업소가 자리를 잡았으며, 길 양쪽으로 윤락녀들이 호객행위를 지속되어 지역민의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다⁶⁾.

이 시기의 청량리 588 집창촌은 인근 상권에 지배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진양교(1998)는 청량리 588 유곽의 토지이용 조사에서 상가 점포들이 유곽을 방문하는 손님들과 유곽종사 여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보고한다. 구체적으로는 윤락시설에서 판매하지 않는 술을 판매하는 주류업(살내포장마차, 선물집, 음식집), 순수잡화상, 기타(빨래방, 머리방, 화장품가게들), 차와 술을 팔면서 매춘행위를 하는 찻집 등이 조사되었다. 이들 상권은 윤락업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성장하였다. 당시 청량리 588지역 인근에 위치한 미용실, 약국, 노점, 슈퍼마켓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존재하였고 현재도 일부 남아 있다. 이들 편의시설은 주로 성매매 여성의 업무에 필요한 준비를 도와주는 상업적 목적으로, 청량리 588 지역의 성매매 산업을 지원하는 편의업무에 집중되었다. 이 시기 청량리 588은 지역 내 영향력을 확장하면서 집창촌 인근지역은 매춘상권에 집중한 공간형태로 변화하게 된다.

3. 청량리 588지역의 쇠퇴기 (2004년 이후)

1990년대까지 24시간 영업할 정도로 호황기를 누리던 청량리 588 지역은 2004년도 성매매 특별법 시행을 분기점으로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성매매특별법의 시행은 청량리 588 지역의 내

부 생태계에 변화를 가져오는 공식적인 계기가 되었다. 공간적으로도 2008년 청량리 588의 상징이었던 '2층갈레'가 철거되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 호황기 시절 업소 당 많은 경우에는 10명의 성매매 여성이 있었던 것과 달리 현재는 1~2명 정도만 있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규모가 많이 축소되었다⁷⁾. '청량리 청과물 도매시장'과 '답십리 골다리 지하차도(이하 골다리)'를 잇는 도로까지 늘어난 미스방이 철거되고 성바오로 병원 인근 대로변이 철거되면서 현재는 다른 용도의 건물이 세워졌거나 공터로 남아있다. 현재 '2층갈레' 골목은 철거 후 거주자 주차구역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청량리 588 성매매 업소는 롯데 영플라자 주차장과 성바오로병원 사이의 구역으로 축소되었고 그나마도 영업을 하지 않는 업소가 대부분이다. 한때 청량리역 이용객을 대상으로 번창하였던 숙박업은 몇몇 모텔과 여관, 여인숙이 남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모텔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장기 투숙객은 성매매 여성이다. 성매매특별법 이후 성매매 여성들은 업소에서 투숙하기보다 자율적인 출퇴근을 선호하게 되었는데, 모텔을 월세 형태로 임대하여 이용하였다. 청량리 588 지역의 쇠퇴로 인해 곳곳에 분포하던 여성들의 편의시설도 이전하거나 문을 닫았다. 현재 청량리 588내에는 미용실 1개소, 약국 1개소가 영업 중에 있으나 이마저도 철거될 예정이다. 인근에 위치한 여인숙과 하급 성매매 업소들은 588 집창촌에서 밀려난 나이가 든 성매매 여성들이 영업을 하는 장소로 미스방에 비해 저렴하고 유리방으로 되어있는 홀이 없다. 청량리역 주변은 롯데백화점과 민자역사

6) 길 양쪽으로 윤락녀들이 거의 벌거벗은 차림으로 종일 호객행위를 해 지역민들의 성매매 업소 철거요구가 있었다는 신문기사는 당시의 호황을 보여준다(동아일보, 1993.7.20.).

7) 호황기 150여 개 업소에서 500여 명의 윤락여성이 북적거렸던 거리는 현재 40여 개 업소에 70여 명 남짓 남아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서울신문, 2015.6.27.).



〈그림 3〉 청량리 588 쇠퇴기의 청량리

가 다양한 상권이 혼합되어 있는 복합소비공간으로 변모하였다. 한때 청량리를 상징하던 588 지역은 거대한 소비공간의 이면에 감춰진 공간으로 2015년 현재, 재개발을 기다리고 있다.

IV. ‘미스방’의 사회적 생산과 사회적 구성

공간에 관한 사회과학적 논의들은 공간이 결코 투명하지 않으며, 사회적 관계와 실천에 의해 구성되고, 동시에 사회적 현실을 만들어냄을 주장한다(De Certeau, 1984; Lefebvre, 1991; Low, 1996). 이러한 맥락에서 성매매 공간에 관한 사회과학적 논의들은 정책 당국의 규제 등을 통해 만들어진 공간이 실제 성산업 관련자의 공간 활용을 통해 변형되고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됨을 보여 준다(Hubbard and Sanders, 2003). 이 장에서는 ‘미스방’이라는 588의 특수한 성매매 공간이 형성되게 된 사회문화적 배경과 이 공간이 내부행위자들의 일상적인 실천에 의해 새로운 상징적 의미를 가진 공간으로 변형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이

장에서는 Low(1996)가 공간적 실천을 분석하기에 유용한 틀로 제시하고 있는 ‘공간의 사회적 생산과 구성(social production and construction of space)’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Low는 도시 공간 구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 두 가지 차원, 즉, 공간의 사회적 생산과 공간의 사회적 구성이라는 층위를 사용하여 설명하는 것의 유용성을 주장한다. 이 때, 공간의 사회적 생산이란 물리적 환경의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경제적·이데올로기적·기술적 요소들을 일컬으며, 공간의 사회적 구성이란 행위자들의 일상적인 실천들에 의해 공간이 특정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 장소로 변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1. ‘미스방’의 사회적 생산

‘미스방’이라는 588의 특수한 성매매 공간은 다양한 정치적, 역사적,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출현하게 되었다. 이 절에서는 Low가 ‘공간의 사회적 생산’이라고 개념화한 틀을 중심으로, 588에 미스방이 출현하게 된 사회문화적, 이데올로기적, 기술적 요소들을 살펴본다. 특히 미스방의 등장과 관련된 588의 미시적 역사를 살펴보고, 이 공간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특성들, 그리고 후기자본주의 사회의 출현과 관련된 거시적 맥락에서의 분석을 제시한다.

588에서 ‘미스방’이라고 불리는 유리문 형태의 성매매 업소가 등장한 시기와 배경에 관해서는 다양한 진술이 존재한다. 588에 관한 기존 학술연구(오유석, 2009)나 신문기사⁸⁾ 등은 1988년 서울을 립꺽을 앞두고 시행된 ‘전국 윤락가 환경개선작업’

8) 최근 기사에 따르면 1988년 ‘전국 윤락가 환경개선작업’의 영향으로 유리방이 등장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서울신문, 2015.6.27.), 지역민의 구술에 의하면 1980년대에 이미 유리방이 존재하였으며, 윤락업소의 호꺽행위 단꺽에 대한 영업방식 변화로 인하여 유리방 형태의 미스방이 생꺽었다고 본다.



〈그림 4〉 초기 미스방(조문호, 2015: 22)

의 일환으로 미스방이 588에 처음 도입된 것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588 내부자들의 구술과 사진자료들은 1988년 이전부터 588에 ‘미스방’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초반 588에 들어와 2000년대 초반까지 588 생태계에 참여하였던 지역민 A는 자신이 들어왔을 당시 ‘미스방’이 존재했다고 기억한다. 다만 588의 모든 성매매 업소가 ‘미스방’ 형태였다기보다는 일부 지역에만 존재하다가 19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급속히 증가했다고 구술한다.

“영업집들이 있는데, 어떤 한집이 뜯어고쳐서 미스방을 만들고 영업하니까 한집, 한집 뜯어고쳐서 미스방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러다 보니까 이 골목이 짝 그렇게 된 거예요. 최근에는 부림호텔 대각선 2층에 거기가 술집 같은 곳인데 1층이 오락실이고 거기조차도 뜯어고쳐서 미스방을 만들어서 영업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있네요. 그때가요, 음, 1980년대 중반... 그때부터 점점 점점 계속 늘어난 거죠.”

(지역민 A의 구술)



〈그림 5〉 현재 미스방(2015년 4월 촬영)

1980년대 초반, 이미 588에 미스방이 존재했다는 지역민 A의 구술은 1984~1988년에 588의 일상생활을 사진으로 기록한 조문호(2015)의 사진집에 의해서도 뒷받침 된다. 이 사진집에 나타난 업소들 중 일부는 이미 여성이 유리방에 전시되는 미스방 형태를 갖추고 있다. 다만 도입 초기 미스방은 〈그림 4〉, 〈그림 5〉에서 보이듯이 현재의 미스방과 구조에서 일부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

예를 들어 지역민 B의 구술에 드러나듯, 도입 초기의 미스방은 여성의 신체 일부가 가려지도록 전체 문 중 일부만이 유리로 되어 있는 반면, 현재의 미스방은 신체 전체가 노출될 수 있도록 문 전체가 유리로 되어있다.

“휘파리를 하지 말라하니까, 호객행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연히 만들어진 거야. 그러가지고 지금은 유리가 여까지(전면) 밖에 못 한거야. 얼굴만 보이게. 예전에는 짧은 거 못 입게 했어. 3분의 1 정도는 가리는 거야. 경찰서에서 자기를 나름대로 규제를 정해서.”

(지역민 B의 구술)

“정해서”라는 위 지역민의 구술과 기존 연구들의 보고를 유추해볼 때, 미스방의 확장에 있어서는 1988년 ‘전국 윤락가 환경개선작업’이 일부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유리방 형태의 매춘이 일종의 ‘국제적 기준’이 되었다고 분석하는 Sabat(2012)은 지역 공동체의 특성이 드러났던 네덜란드 데 발렌(De Wallen) 지역의 과거와 현재 유리방을 비교하면서, 인터넷에 보이는 서울 용산의 유리방 사진과 현재 데 발렌의 유리방이 매우 유사하다고 언급한다. 서울 매춘가에 데 발렌과 유사한 형태의 유리방이 존재하는 것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영향인지에 관한 논의와는 별개로, Sabat이 규정하는 것과 같이 두 유리방이 동일한 형태는 아니다. 즉, 일견 유사해보이는 두 유리방은 건축물 구조와 쓰임새에 있어서 매우 다른 모습을 띤다. 우선 네덜란드의 유리방 형태 매춘업소는 여성이 전시되는 공간과 매춘이 일어나는 공간이 같은 장소로, 한 명의 여성이 한 유리방을 임대하여 사용한다(Sabat 2012: 163). 반면 588의 미스방은 여성이 전시되는 공간과 매춘 장소가 분리되어 있으며, 여러 명의 여성들이 ‘홀’이라고 불리는 전시 장소와 ‘영업방’이라고 불리는 매춘 장소를 공유한다.

이렇게 588의 미스방이 네덜란드의 유리방과 다른 형태를 띠는 것은 우선 미스방 건축물의 도입 과정과 관련이 있다. 588에서 미스방의 건물구조는 단층의 도시한옥⁹⁾과 상가건물의 1층에 위치하고 있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상가건물 1층에 위치한 미스방은 588 일대의 대형 건물인 ‘가나안’ 건물이나 모텔·여관의 1층에 위치하며, 과거에는 미용실이나 약국 등 일반 상점이었으나 성매매 업소들이 증가하면서 비교적 최근에 미스방으로 변

한 곳이다. 반면 도시한옥으로 된 미스방은 본래 주거 목적으로 개발된 건물을 개조한 것이다.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초 당시 한국전쟁 이후 교통의 요충지로 상권이 집중되고 인구가 증가하였던 청량리 지역에는 도시한옥이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청량리 지역의 시장이나 유흥 상권이 증가하면서 주거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변하였고, 기존의 주거를 위한 도시한옥은 다양한 형태의 상점으로 개조되기 시작하였다(이경욱, 2013; 이경욱·송인호, 2013; 정기황, 2015). 588의 미스방도 이러한 맥락에서 본래 주거 목적의 한옥들이 매춘이라는 상업적 목적을 위해 개조된 것이다. 다음 구술에 그나마, 588의 지역민들은 주거형태의 가옥이 청량리역 주변에 필요한 숙박업을 대체하는 공간으로 변하였으며 이후 성매매 업소가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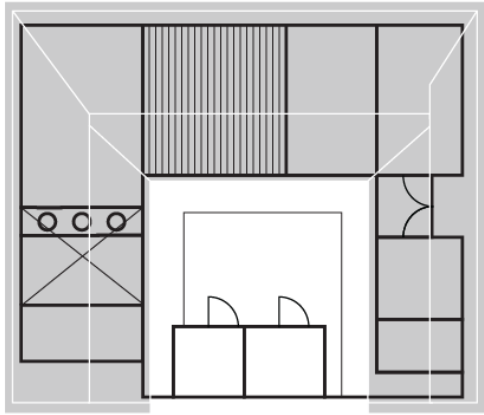
“주거 형태라고 봐야 되는데, (중략)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역도 가깝고, 새벽에 열차 도착하는 것이 많았었어요. 그러면, 이제 무허가 하숙 비슷하게 잠깐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형태, 그게 그러다 보니 발전한 거지”

(지역민 C의 구술)

특히 지역민 중에 “이 삼촌이 미스방을 만드는 데는 최고의 기술자야”, “내가 1평도 안 되는 틈 사이로 영업방을 만들었었어”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였는데, 이는 호황기에 방을 분할하거나 가건물을 짓는 등 한정된 공간에 최대의 영업방을 만들어 효율성을 극대화하려 했음을 보여준다.

도시한옥의 기본적인 구조는 ‘ㄷ’자 형태인데, 미스방은 이를 분할하거나 개조하여 ‘ㄱ’자 또는

9) 도시한옥은 서울에서 1930년을 전후로 한 시기로부터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지어진 형식이며 개량한옥이라고도 지칭한다(백선영, 2012).



〈그림 6〉 ㄷ자형 한옥 구조(송인호, 1990: 111 재구성)

‘ㄷ’자 형태이다. 〈그림 6〉은 대표적인 도시한옥의 구조이며, 〈그림 7〉은 588에 남아있는 미스방의 구조이다. 〈그림 7〉은 본래 한 건물이지만 홀이 2개로 나누어져 있어 외부에서 바라보면 두 개의 개별적인 건물처럼 보인다. 이는 미스방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 중 하나인데, 성매매 여성들의 홀에서 경쟁을 최소화하고 대신 ‘영업방’을 많이 만들기 위해 2개의 업소로 분할한 것이다. 〈그림 6〉에서 보여지듯, 미스방은 크게 ‘홀’과 ‘영업방’으로 구분되는데 성매매 여성들이 전시되는 공간인 ‘홀’은 도시한옥의 출입구와 벽면을 상가형 형태로 개조하여 만든 것이고, 매춘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영업방’은 내부의 방들, 그리고 대청이나 마당을 방으로 개조하거나 분할하여 만든 것이다.

이러한 미스방의 물리적 구조는 청량리 지역의 상업화, 도시형 한옥의 등장과 변형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588 생태계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한 명의 성매매 여성이 하나의 유리방을 사용하는 네덜란드 데 발렌의 유리방은 개별 여성의 독립적인 공간이다. 반면 여러 여성들이 동시에 한 홀에 전



〈그림 7〉 미스방 구조(도시한옥 개조 사례)

시되고, 홀 뒤에 있는 영업방들을 매춘이나 생활 장소로 공유하는 588에서 미스방은 공동생활의 공간이다. 588의 쇠퇴와 성매매 산업 구조의 변화로 출퇴근하는 성매매 여성이 증가하였지만, 588의 성매매 업소의 전형적인 생활 형태는 포주와 성매매 여성들이 숙식을 함께 하면서 일상을 공유하는 방식이었다. 특히, 빨래, 식사, 청소 등을 담당하는 ‘이모’라 불리는 보조 인력들은 이러한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때 영업방이라고 불리는 홀 뒷 권의 작은 방들은 성매매 여성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잠과 휴식을 취하는 공간인 동시에, 손님이 있을 때에는 영업의 공간으로 이용되었다. 즉, 일터와 휴식공간이라는 기능이 분리되지 않은 채 개별 소유가 아닌 공동의 공간으로 이용되었던 것이다. 물론 이 공동생활에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포주들의 감시와 통제도 포함되었다. 포주들은 홀 내부의 영업방 중 하나에 거주하면서 숙식을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영업 시 시간관리와 ‘돈통’이라고 불리는 금고 관리를 하였다. 홀과 영업방이 구분되어 있고 이를 여러 명이 공유하는 미스방의 물리적 구조는

이러한 공동생활의 문화를 반영하는 동시에 이를 가능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588의 지역민들은 인터뷰에서 과거 ‘한 동네’ 같았던 588의 돈독했던 사회적 관계를 종종 언급하였는데, 이 때 빈번히 등장하는 이야기 중 하나는 당시 식사시간이 되면 어떤 영업집에 가도 식사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즉, 성매매 업소가 하나의 생활 공동체였을 뿐만 아니라, 588 전체가 일종의 마을 공동체 성격을 띠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⁰⁾. 이러한 공동생활의 문화나 공동체적 사회관계는 단순히 588의 특성이라기 보다는 당시 한국사회의 사회관계의 특성이기도 하다. 결국 미스방의 구조적 특성은 588 지역, 더욱 넓게는 한국 사회의 공동체적 문화라는 사회문화적 조건이 생산해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588에서 ‘미스방’의 등장은 앞서 지역민 B의 “취파리를 하지 말라하니까 호객행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연히 만들어진거야”라는 구술에도 드러나듯이, 호객행위 단속 중심으로 윤락행위방지법을 시행했던 당시 감독기관들의 실천방식과 연관성을 지닌다. 이러한 맥락에서 588에서 미스방의 등장은 단순히 새로운 건축물의 도입이라기보다는 과거의 영업방식과의 단절과 새로운 영업방식의 도입을 의미한다. 미스방 도입 이전 588의 주요 영업방식은 ‘팸푸’라고 불리는 여성 호객꾼들이 손님을 유인하는 방식이었다. ‘취파리’라고 불리는 이 영업방식은 성매수자들이 성매매 여성들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팸푸와 가격, 시간 등을 흥정하는 것으로 다음 인터뷰에서도 드러나듯 거래의 불투명성, 강제력 수반 등을 특징으로 한다.

“그 때는 아가씨들이 앞에 나와서 군인이고 뭐고 막 끌고 들어가서, 양쪽에서 막 팔짱 끼고 들어가고, 막 모자 뺏으면 그거 찾아서 골목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가면 돈 뺏기고 맞고 그러고...”
(지역민 A의 구술)

“옛날에는 다 끌고 들어가던 때거든. 역전에 나가서 짹 끌고 들어오고.”
(지역민 D의 구술)

1960~1980년대 588에 대한 신문기사에서 대로변 윤락 호객행위나 폭력 사건 등이 종종 언급되는 것은 이러한 내부자들의 구술을 뒷받침해준다.

“도시정화를 위해 서울의 대표적 사창가였던 종삼을 철거한 이후 당국의 단속이 뜸해지자 다시 부쩍 늘어난 창녀 콜걸 등이 주택가에 침투, 일반 주민들에게 갖가지 피해를 주고 특히 어린이 교육에 크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서울시경이 집계한 창녀는 적선지역 내에 409명, 적선지역 밖에 458명 모두 867명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5천여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창녀들은 청량리역 옆인 전농동 588, 영등포구 영일동 618, 양동, 도동 등지에는 밀집해 있으나 이웃 주택가에도 스며들어 낮에도 골목길에서 행인의 팔소매를 끌기도 한다. 특히 종삼폐쇄 이후 가장 대표적인 사창가의 하나가 된 전농동 588의 경우 창녀들은 행인에게 달려들어 옷을 찢고 할퀴는가 하면 돈까지 빼앗는 등 행패가 심해 즉결에 넘겨진 것만도 11월 한달동안 100여 명에 달하고 있다.”

(동아일보, 1969.12.9.)

10) 이러한 마을 공동체적 성격의 이면에는 성매매 생태계의 착취적 구조 또한 반영되어 있다. 지역민들은 과거 588의 미성년 고용과 고리대금을 통한 수탈적 측면을 종종 언급하였는데, 마을 공동체적 성격은 이러한 성매매 여성과 포주, 삼촌, 금융업자 등과의 착취적 관계를 재생산시키는 주요한 기제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휘파리’라는 영업방식이 거래의 불투명성과 강제력을 특징으로 한다면, 미스방의 등장은 손님 선택권이 보다 확대된 영업방식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미스방의 영업은 성매수자들이 미스방의 홀에 전시되어 있는 여성들을 직접 보고 선택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다음 구술 내용에서도 드러나듯 거래의 투명성과 매수자의 선택권 확대를 특징으로 한다.

“초이스가 여기가 편해요. 술집은 아가씨가 쪽 서 있으면, 어떤 사람은 뺨찌 못 놓고 됐어요(하고), 대 놓고 뺨찌 못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는 한 바퀴 돌든 두 바퀴 돌든 자기취향대로.”

(지역민 A의 구술)

“손님들이 여기와서는 거의 자기 스타일에 맞는... 돌아다니면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지”

(지역민 D의 구술)

이러한 변화는 가격 구조에도 반영되어 다음 인터뷰에도 드러나듯 미스방의 도입과 함께 588 지역의 성매매 가격이 상승하였고, 동시에 경찰제의 성격으로 운영되었다.

“제가 만 오천 원할 때 들어왔으니까. 미스방이 생기면서 올랐지.”

(지역민 A의 구술)

“그런 적은 없어요. 내린다고 해서 사람이 물리는 게 아니라 아가씨 보고 가는 거라니까. 여기의 장점이 뭐야? 내가 처음 봤지만 내 맘에 드는 사람을 초이스 할 수 있는 거.”

(지역민 D의 구술)

미스방의 도입 이후 588에서 호객행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최근 호객행위는 ‘우성 아파트’ 주변과 같은 588의 일부지역에서만 행해지고 있을 뿐, 미스방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588 내부를 관찰하면 승용차를 이용하여 동일한 경로를 반복적으로 이동하면서 미스방에 있는 성매매 여성을 선택하는 남성들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이는 ‘휘파리’ 방식의 영업이 주가 되었던 과거 ‘뽕꾸’의 적극적인 호객행위를 통해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불투명한 거래를 해야 했던 것과 매우 다른 모습으로, 미스방의 등장이 영업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음을 보여준다.

588에서 미스방은 미시적으로는 호객행위 단속 중심으로 윤락행위방지법을 시행하였던 사회적 환경과 조건이 생산해낸 공간이지만, 거시적으로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소비 방식이 반영된 결과물이기도 하다. 매춘에 관한 기존 연구들(Bernstein 2007; Brents and Hausbeck 2006, 2009)은 현대사회의 성 소비와 기타 상품 소비 방식의 유사성을 언급하면서, 조지 리처(George Ritzer)가 ‘맥도날드화(McDonaldization)’라고 명명한 효율성, 표준화, 측정가능성, 통제라는 요소들이 기억에 남을 만한 독특한 경험이라는 또 다른 한 축과 함께 성소비의 중심에 있다고 분석한다. 암스테르담 홍등가의 깨끗한 거리, 낮은 범죄율, 내온 분위기, 여성들을 상품처럼 전시하여 선택할 수 있는 윈도우를 미국에서 발전한 쇼핑몰과 유사하다고 분석한 Wonders and Michalowski (2001)의 연구와 유사하게, 투명한 구조를 통해 거래의 예측가능성과 표준화, 그리고 매수자의 선택권을 확대시킨 588의 미스방도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소비 방식이 만들어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2. '미스방'의 사회적 구성

이상에서 살펴 본 역사적, 사회문화적 배경을 기반으로 588에 도입된 '미스방'은 588 내부자들에게 수동적으로 수용되기보다 구성원들의 다양한 상호작용, 이용 방식, 기억 등에 의해 새로운 의미를 지닌 공간으로 변형 또는 재구성되었다. 이 절에서는 로우(Low, 1996)가 '공간의 사회적 구성'이라고 명명한 과정, 즉 공간이 사람들의 사회적 교환, 이미지, 기억, 일상적 사용 등에 의해 상징적 의미를 지닌 장면(scene)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미스방'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둘러싸고 어떻게 일어났는지 살펴본다.

1) 호황의 상징으로서 미스방

588 내부자들에게 미스방은 호황에 대한 기억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내부자들의 구술에서 미스방이 가장 빈번히 등장하는 부분은 호황기에 대한 맥락에서였다. 내부자들은 1980~1990년대 호황기에 대한 기억을 구술하면서 흔히 588의 어떤 지역까지 미스방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588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미스방에 불이 켜져 있었는지를 그 근거로 삼았는데, 이는 곧 미스방이라는 공간이 내부자들에게 호황의 사인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다음 인터뷰에서 성매매 여성 E는 자신이 청량리에서 처음 일을 시작한 1990년대의 호황을 현재와 비교하면서, 미스방에 불이 켜진 것의 유무로 호황을 묘사한다. 유사한 의미에서 지역민 A도 대로변까지 미스방이 들어섰던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의 호황기를 언급하면서, 이를 "휘향찬란 했다"고 표현한다.

“굉장히 많았죠. 동네에 불을 다 켜다고 생각하면 되죠. 한 집도 안 빼고 썩 다. 지금은 한 집 걸러 두 집씩 불이 꺼져있고 하잖아요. 그 때는 다 켜져 있고… (중략) 굉장히 많았죠. 그 때는 사람이 바글 바글 했죠. 시장통처럼… 재래시장 이런데 가면 사람들 들끓듯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라고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성매매 여성 E의 구술)

“대로변, 옛날에는 거기가 메인이었어요. 그쪽이 진짜 휘향찬란 했었어요”

(지역민 A의 구술)

네덜란드 드 발렌의 성매매 산업에서 유리방의 붉은 빛과 검은 빛의 반짝임이 여성의 몸과 공간의 색조를 밝고 어둡게하여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분석한 것과 유사하게(Sabat 2012: 163), 미스방의 불빛과 휘향찬란함에 대한 내부자들의 언급은 588에서도 미스방의 불빛이 유사하게 기능하였음을 유추하게 하며, 불빛으로 조성된 이러한 초현실적이고 축제적인 분위기는 곧 호황을 상징했다. 미스방이 거래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영업방식의 도입이라는 본래적 의도와 달리 588 내부에서는 축제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공간으로 기능했던 것이다.

특히 내부자들은 미스방을 단순한 호황의 사인으로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공간을 축제적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곳으로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변형하였다. 도입 초기에 붉은빛 위주였던 미스방의 인테리어는 이후 다양화되었는데, 이는 내부자들이 미스방을 보다 화려하고 초현실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영업에 유리하게 하고자 한 시도의 결과물이었다.

“예전에는 지금같이 화려하지 않고, 빨간불.. 진짜 말 그대로 빨간불...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저렇게 조명이 화려하지 않았어요. 시대에 따라서 조명도 다 바뀐 거예요. 미스방도 다 바뀌고. 미스방 홀도 샷시가 지금은 좋은 걸로 다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때 당시는 좋은 샷시였죠. 몇 년 지나면 어떤 집에서 좋은 걸로 바꾸면 다른 집도 너도나도 좋은 걸로 바꾸고... 조명도 어떤 집에서 빨간불을 키다가 파란불도 키고 막 색을 바꾸고 하면 다른 집도 막 바꾸고. 자기 나름대로 영업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 거죠).”

(지역민 A의 구술)

위의 인터뷰 내용에 드러나듯, 호객행위 금지라는 외부적 기능이 지배했던 도입 초기 미스방의 인테리어는 붉은 불빛으로 통일되어 있었으며, 내부자들에게 영업의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다. 이후 내부자들이 다양한 불빛, 거울, 화려한 샷시 등 경쟁적으로 미스방의 인테리어를 화려하고 축제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변형시키면서 588의 미스방은 보다 다양하고 화려하게 변화하였고, 동시에 미스방의 인테리어는 영업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낮 시간대 588에서는 업소의 청소, 빨래, 음식 등을 해 주는 ‘이모’라고 불리는 여성들이 미스방의 유리창을 닦고 있는 모습을 흔히 관찰할 수 있는데, 미스방 인테리어의 관리가 영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다. 현재 588 내부자들에게 미스방이란 거래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호황의 사인이자 화려한 분위기 조성을 통해 영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2) 경쟁과 상품화의 공간으로서 미스방

588의 성매매 여성들은 구술에서 미스방이라는

공간에 대해 종종 양가적 감정을 표현한다. 588의 성매매 산업이 쇠퇴한 현재 상황에서 여성들은 1980~1990년대 호황기 미스방의 불빛을 그리워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 미스방이라는 공간적 구조가 야기하는 일의 스트레스를 언급한다. 미스방의 등장으로 인한 영업방식의 변화는 일견 보다 투명한 방식의 성매매로의 전환이기도 하지만, 성매매 여성들에게 이러한 투명성은 곧 끊임없는 경쟁에의 노출을 의미한다. <그림 8>에서도 보이듯 투명한 유리로 되어 마주보고 있는 미스방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여성들의 영업실적을 그대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공간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같은 미스방을 공유하고 있는 여성들뿐만 아니라 앞과 옆의 여성들의 실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미스방의 공간적 구조는 여성들을 끊임없는 경쟁에 노출시킨다. 다음 구술은 미스방의 투명한 공간적 구조 속에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보여 준다.

“내가 10만 원 밖에 못 벌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사람이 정신적으로... 미치거든요. 내가 들어갈 돈은 어떻게 있고, 내가 얼마를 벌어야 하는데, 손님은 없고, 잘 안 돼. 사람은 그날그날마다 재수가 있잖아요. 안 되기 시작하면 스트레스 받는 거야.”

(성매매 여성 E의 구술)

“재는 3~4명을 받고 있는데, 나는 지금 한 개도 못하면... 막 열받아가지고 이게... 그거는 안 해 본 사람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거 때문에 애들이 다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이 가게에서 한 일주일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그만두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한 일주일 못 벌어도 내 생활에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내가 이 가게를 갔어, 그런데 다른 애들은 잘되, 나만 안 돼, 그러면 우리 가게에서만 내가 안되는



〈그림 8〉 마주보고 있는 미스방(2015년 4월 촬영)

게 아니라. 여기 다 이렇게 보이니까. 나는 여기서 일 할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자존심 상하고 짜증나고. 그런 게 되게 심해요.”

(성매매 여성 F의 구술)

위의 구술에 드러나듯, 여성들이 미스방의 공간 특성으로 인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단순히 절대적인 수입 확보의 문제보다는 상대적인 비교와 경쟁에 따른 것이다. 끊임없이 영업 실적이 비교·경쟁되는 상황 속에서 일부 여성들은 이러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절대적인 수입 확보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588을 떠나 미스방 형태의 영업을 주가 아닌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한다.

588의 성매매 여성들은 이러한 투명한 공간적 특성이 야기하는 경쟁의 구조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공간적 특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경쟁에 참여한다. 성매매 여성들이 미스방에서 여성의 수를 업주와 적극적으로 협상하는 것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성매매 여성들이 업주와의 계약에서 영업이익 배분 못지않게 중요시하는 것은 미스방의 홀에서 영업하는 여성의 수에 관한 것이

다. 여성들은 홀에서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미스방을 공유하는 여성의 수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업주와 협상을 한다. 다음 인터뷰에서도 드러나듯 8~10명까지도 함께 이용하였던 과거와 달리, 최근 588의 미스방에는 3명 내외의 여성들이 서는 것이 일반적이다.

“옛날에는 사람이 많았을 때는 8명, 10명씩 서는데, 지금은 3명 이상만 서도 난리가 나죠.”

(성매매 여성 F의 구술)

“지금도 돈 안 벌리는데 뭘 애들을 더 쓰냐 제지가 딱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주인이 자기 욕심 같아서 세우고 싶어도 애들이 그러면 뭐 나갈래요. 이려고 짜증내니까 그렇게 못 세우는 거죠. 그리고 주인도 알아요. 3명이, 3명이 맥시мум이다. 3명까지 세워가지고 버는 돈이 있고, 괜히 애들 더 세워도 여차피 나눠먹기고, 괜히 가게만 더 시끄러워지고 그러니까 주인들도 그냥 더 욕심 내지 말아야지 그런 식이에요. 내가 욕심내서 애들이 다 튕겨 나갈 바에는 이거 벌고 말자... 그리고 요즘 애들은 같은 가게에 많이 있는 걸 선호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빛 있는 애도 많고, 또 어리고 주인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성매매 여성 E의 구술)

포주가 작은 공간에 최대한 많은 영업방과 홀을 만들어 효율성의 극대화를 꾀하였다면, 성매매 여성들은 이에 대항하여 경쟁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홀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미스방을 공유하는 여성의 숫자가 줄어든 것은 업주와 성매매 여성의 관계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위의 구술에서도 드러나듯, 과거 588의 업주와 성매매 여성의 관계는 계약 초기부터 여성이 업주에게 빚을 지고 시작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었

고, 따라서 업주는 성매매 여성들에게 상당한 통제력을 발휘했다. 이러한 관계는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시행 후 588의 성매매 산업이 쇠퇴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여 이후에는 관계에서 성매매 여성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유하게 되었다. 영업이익배분에 있어서도 과거 5:5의 비율로 배분하던 것이 이후 4:3, 즉 15분에 7만 원인 화대를 여성이 4만 원, 업주가 3만 원 가져하는 것으로 변하였고, 최근에는 성매매 여성이 업주에게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나머지 수익을 본인이 가져가는 ‘갈세’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이렇게 성매매 여성이 업주와의 관계에서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유하게 되면서, 여성들은 미스방을 공유하는 여성의 숫자를 협상하는 데 있어서도 유리하게 되었다. 즉, 성매매 여성들이 경쟁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이다.

588의 성매매 여성들이 미스방의 공간적 구조를 활용하여 경쟁에 참여하는 방식은 여성들의 패션에서도 드러난다. ‘팸푸’가 성매매를 알선하는 과거와 달리, 성매매수가 미스방에 전시된 여성들을 선택하는 영업 방식에서 미스방에 전시된 여성의 외모는 영업의 중요한 요소이다. 서로 비교되며 고객을 유인해야 하는 구조 속에서 여성들은 미스방에서 돋보일 수 있는 의상, 화장, 자세 등을 경쟁적으로 고안해내는데, 588 여성들이 착용하는 40센티미터가 넘는 높은 구두는 이러한 경쟁의 결과물이다. 다음 구술에 드러나듯 굽이 높은 구두는 골목이 크고 넓어서 여성들이 자신을 크게 보여야 했던 평택의 성매매 업소에서 유행하던 것인데, 평택의 성매매 여성들이 588에 유입되면서 588에도 도입되었다. 588은 평택과 달리 골목이 좁아 높은 구두가 필요하지 않았지만,

당시 평택에서 유입된 여성들이 굽 높은 구두를 신고 미스방에 서게 되자 다른 여성들도 비교 유위에 서기 위해 경쟁적으로 높은 굽을 선호하게 되었고, 굽이 높은 구두가 588에도 유행하게 된 것이다.

“애들이 그 신발을 신고 여기를 넘어 온 거지. 그러니까 내 키에... 키가 작잖아요. 저희는... 근데 우리가 15센티 신었어. 근데 개네, 170되는 애들이 30센티 신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가 안보이잖아. 그래서 애들이 다 높은 걸 신게 된 거야.”

(성매매 여성 E의 구술)

이렇게 홀을 공유하는 여성의 숫자를 협상하고, 미스방이라는 공간적 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패션을 고안하는 성매매 여성들의 모습은 일견 성매매 여성의 자율권 확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성을 상품화하는 주체와 방식의 변화를 반영한다. 미스방의 등장 이전 성매매 여성은 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팸푸’와 업주에 의해 상품화되었고 적극적인 영업의 주체는 아니었다. 반면 미스방의 등장으로 여성이 미스방이라는 홀에 전시되기 시작하면서, 여성은 이전과 달리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몸을 상품화하고 영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는 성매매 여성의 외모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미스방의 구조가 실적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여성으로 전환시키고, 동시에 특히 영업실적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미스방의 공간적 구조가 여성들의 자발적인 경쟁을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성매매의 경험을 피해자로서의 경험이 아닌 자발적 노동의 경험으로 인식하게 된다. 즉, 미스방의 공간적 구조가 성매매 행위를 개인 여성들의 주체적 수용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것이다.

3) 미스방의 시각적 효과와 글로벌라이제이션

청량리 588의 내부자들은 588이라는 공간을 규정하는 데 있어 상당히 순혈주의적 태도를 취한다. 내부자들은 구술에서 588이 다른 집창촌과 달리 외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 곳임을 강조하였다. 실제 588의 호황기에 일본인 관광객들이 588을 많이 찾았고 최근에는 중국인들도 받고 있지만, 내부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일관되게 588이 한국인 손님만을 상대로 매춘을 하는 곳이라는 주장하였다. 이러한 내부자들의 태도에는 588이 최고급 매춘가라는 자부심과 종족에 대한 한국 사회의 위계적 질서가 반영되어 있다. 즉, 588 타지역과 비교하여 최고급 여성들이 매춘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한국인 손님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한다는 논리인 것이다. 실제 인터뷰에서 내부자들은 일부 일본인 손님을 받았던 것을 인정하면서도 중국인 손님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정하곤 하였는데, 이 또한 일본인을 중국인보다 상위의 종족으로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종족에 대한 위계적 질서를 반영한다.

588을 한국 여성들이 한국 남성들을 대상으로 매춘을 하는 순혈주의적 공간으로 규정하는 내부자들과 달리, 실제 미스방이라는 투명한 공간적 구조는 588을 글로벌상품화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매춘과 글로벌라이제이션에 관한 연구들(Brents and Hausbeck, 2009; Sabat, 2012; Wonders and Michalowski, 2001)은 인터넷에 의해 매춘 공간들이 시각적으로 공유되면서 전 세계 관광객들의 시선을 받게 됨을 지적한다. 이러한 현상은 588에서도 드러났는데, 특히 성매매 여성의 외모와 거래 과정이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는 미스방 구조적 특성은 588을 그 자체로서 시각적 소비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일본과 중국의 주요 인터넷 사이트(일

본의 야후 재팬과 중국의 바이두)에서는 588의 미스방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들이 실제 체험 후기와 함께 빈번히 공유되고 있는데, 이는 미스방이라는 588의 공간적 구조가 실제 도입 초기에는 의도하지 않았던 588의 글로벌상품화를 가져왔음을 보여준다. 특히, 588의 미스방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일본과 중국 등지에 소개되면서 미스방은 성매매와는 별개로 미스방 자체로서 하나의 시각적 소비의 대상이 되었다. 실제 최근 중국인 관광객과 유학생들 사이에서 청량리 588은 관광 코스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다. 미스방이라는 공간적 구조가 588을 글로벌한 성매매 공간으로 상품화하고, 동시에 세계적인 관광객들의 시선을 생산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V. 결론

이 연구는 청량리 588에 대한 사회과학적인 논의와 분석을 수행하여 기존에 국내의 집창촌에 대한 연구가 사회사적인 연구에 치중하였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청량리 588의 형성 및 변화 과정과 내부에 미스방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간 생산의 논리를 분석하여 다양한 사회과학적 의의를 발견할 수 있었다. 기존의 사회과학적인 논의와 비교하여 청량리의 특성이 가지는 의미를 논의해 볼 수 있다.

첫째, 해외 연구에서 서울의 유리방 성매매를 언급하는 경우들이 있었으며 마치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나타나는 동질적인 확산에 의한 영향인 것처럼 해석하였으나, 실제로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이다. 특히 암스테르담의 경우 개인과 포주의 관계가 중심이라면 청량리의 경우 상당히 유사 생활 공동체와 같은 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국가 권력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청량리 집창촌은 국가 권력에 의해 ‘관용의 지역(zone of tolerance)’으로 기능하였다. 즉 드러나지 않게 국가권력이 지속적으로 관리해 온 흔적이 보인다. 588의 생태계에 참여하는 다양한 내부자들은 국가의 통제에 저항하는 경우도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국가의 통제에 철저히 순응하여 공간의 지속을 꾀하는 전략을 취해왔다. 이러한 전략은 호객 금지에 따라 미스방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나 고객이 국제화되고 국내 유입되는 외국인 여성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충원하지 않는다는 주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소비문화의 변화가 전반적으로 집창촌의 형성이나 작동 원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특히 미스방과 같은 성매매 활동의 변화가 ‘맥도널드화’ 같은 소비문화의 변화에 의한 영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소비의 위계화가 공간적인 위계로 연결되는 지점에서 소비문화가 공간적 질서를 통해 물질화되는 현상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참고문헌

- 강정숙, 1998, “대한제국·일제 초기 서울의 매춘업과 공창제도의 도입”, 『서울학연구』, 11: 197~237.
- 김연주, 2010, “신빈곤층 십대 여성의 성매매 경험과 자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문화학협동과정 박사학위논문.
- 김윤희, 2006, “인천 송의동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여성학 석사학위논문.
- 김은경, 2004, “한국의 성매매 현황과 형사법적 대응실태”, 『성매매: 새로운 법적 대책의 모색』, 서울: 사람생각.
- 김종근, 2011, “식민도시 경성의 유곽공간형성과 근대적 관리”, 『문화역사지리』, 23(1): 115~132.
- 김희식, 2011, “20세기 인천의 도시화와 매춘문제 고찰”, 『역사와 경계』, 85: 267~300.
- , 2012, “동소문 밖의 사람들: 미아리일대의 역사·공간·삶”, 『로컬리티 인문학』, 6: 91~130.
- 서울시사편찬위원회, 1979, 『서울육백년사』, 서울특별시.
- 박정미, 2011, “한국 성매매정책에 관한 연구: ‘목인-관리체제’의 변동과 성판매여성의 역사적 구성, 1945~2005년”, 서울대학교 사회학 박사학위논문.
- 변정혜, 2004, “성매매의 고착기제 연구: 탈성매매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변해정·민가영, 2007, “청소년의 가출의미에 대한 연구: 계급정체성에 따른 성역할과 성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3(1): 5~37.
- 백선영, 2012, “한옥 멸실의 유형형태학적 해석: 서울 한옥주거지의 1970년 이후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도시설계전공 박사학위논문.
- 서정우, 2011, “광주 대인동 ‘집창촌’의 ‘매춘’ 지리학: 집창촌에서 ‘매춘여성’의 포함적 배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4(3): 177~190.
- 송인호, 1990, “도시한옥의 유형 연구: 1930~1960년의 서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사학위논문.
- 오유석, 2009, “동대문 밖 유곽: ‘청량리 588’ 공간 구성의 역사와 변화”, 『서울학연구』, 36: 101~135.
- 윤영효, 1994, “588인생들은 어디로”, 『월간 말』, 98: 204~207.
- 이경옥, 2013, “청량리지구 도시한옥의 변화양상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경옥·송인호, 2013, “청량리지구 도시한옥의 변화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 2013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67~72, 한국건축역사학회.
- 전강수, 2012,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강남개발”, 『역사문제연구』, 28: 9~38.
- 정기황, 2015, “서울 도시한옥의 적응태”,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 박사학위논문.
- 조문호, 2015, 『청량리 588: 1984~1988』, 눈빛.
- 진양교, 1998, 『청량리의 공간과 일상 일과, 시장 그리고 유곽』,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 최수연, 2012, “해외로 인신매매된 성매매여성의 삶과 법적 지원의 한계”, 『여성과 인권』, 7: 64~74.

- 홍성철, 2007, 『유곽의 역사: 아미산하 유곽에서 파주 용주골까지, 집창촌 100년의 기록』, 서울: 페이퍼로드.
- 홍현주, 2013, “성매매방지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고찰”, 『2013 성매매방지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2013.6.14).
- Aalbers, M., 2005, “Big Sister is Watching You! Gender Interaction and the Unwritten Rules of the Amsterdam Red Light District”, *The Journal of Sex Research*, 42(1): 54~62.
- Aalbers, M. B. and Deinema, M. 2012, “Placing Prostitution: The Spatial -sexual Order of Amsterdam and its Growth Coalition”, *City* 16(1~2): 129~145.
- Aalbers, M. B. and Sabat, M., 2012, “Remaking a Landscape of Prostitution: The Amsterdam Red Light District”, *City*, 16(1~2): 112~128.
- Ashworth, G. J., White, P. E., and Winchester, H. P. M., 1988, “The Red-light District in the West European City: A Neglected Aspect of the Urban Landscape”, *Geoforum*, 19(2): 201~212.
- Bernstein, E., 2005, “Desire, Demand, and the Commerce of Sex”, *Regulating Sex: The Politics of Intimacy and Identity*, Bernstein, E. and Schaffner, L.(eds.), 202~125, New York: Routledge.
- _____, 2007, *Temporarily Yours: Intimacy, Authenticity, and the Commerce of Sex*.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rants, C., 1998, “The Fine Art of Regulated Tolerance: Prostitution in Amsterdam”, *Journal of Law and Society*, 25(4): 621~635.
- Brents, B. and Hausbeck, K., 2006, “Marketing Sex: US Legal Brothels and Late Capitalist Consumption”, *Sexualities*, 10: 425~439.
- _____, 2009, “McDonaldization of the Sex Industries: The Business of Sex”, *McDonaldization: The Reader*, Ritzer, G.(ed.), 102~118, Pine Forge Press.
- Burgess, E. W., 1928, “Residential Segregation in American cities”,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140: 105~110.
- De Certeau, M.(auth.), Rendall, S.(trans.), 1984,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1980, *L'invention du Quotidien*, Vol. 1, *Arts de faire*, Paris: Gallimard).
- Deinema, A., 2012, “A Global Red-light City? Prostitution in Amsterdam as a Real-and-imagined Place”, *Imagining Global Amsterdam: History, Culture, and Geography in a World City*, de Waard, M.(ed.),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 Hubbard, P. and Sanders, T., 2003, “Making space for Sex Work: Female Street Prostitution and the Production of Urban Space”,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7(1): 75~89.
- Hubbard, P. and Whowell, M., 2008, “Revisiting the Red Light District: Still Neglected, Immoral and Marginal?”, *Geoforum*, 39(5): 1743~1755.
- Hubbard, P., 2013, *Cities and Sexualities*, Routledge.
- Lefebvre, H.(auth.), Nicholson-Smith, D.(trans.), 1991, *The Production of Space*, Wiley-Blackwell(1974, *La Production de l'Espace*, Paris: Anthropos).
- Loopmans, M. and Van Den Broeck, P., 2011, “Global Pressures, Local Measures: The Re-regulation of Sex Work in The Antwerp Schipperskwartier”, *Tijdschrift Voor Economische en Sociale Geografie*, 102(5): 548~561.
- Low, Setha M., 1996, “Spatializing Culture: The Social Production and Social Construction of Public Space in Costa Rica”, *American Ethnologist*, 23(4): 861~879.
- Mathieu, L., 2011, “Neighbors’ Anxieties against Prostitutes’ Fears: Ambivalence and Repression in the Policing of Street Prostitution in France,” *Emotion, Space, and Society*, 4: 113~120.
- Park, R., 1952, *Human Communities*, Glencoe: Free Press.
- Prior, J., 2008, “Planning for Sex in the City: Urban Governance, Planning and the Placement of Sex Industry Premises in Inner Sydney”, *Australian*

- Geographer*, 39(3), 339~352.
- Ryan, C. and Kinder, R., 1996, "Sex, Tourism and Sex Tourism: Fulfilling Similar Needs?", *Tourism Management*, 17(7): 507~518.
- Ryder, A., 2004, "The Changing Nature of Adult Entertainment Districts: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 or Going from Strength to Strength?", *Urban Studies*, 41(9): 1659~1686.
- Sabat, M., 2012, "From Red Light to Black light", *City*, 16 (1~2): 158~171.
- Serino, A., 2012, "A Collection of Documents from Redlight Art Amsterdam Introduction to the Artists' Contributions", *City*, 16(1~2): 173~177.
- Weitzer, R., 2009, "Sociology of Sex Work", *Annual Review of Sociology*, 35: 213~234.
- _____, 2014, "The Social Ecology of Red-Light Districts: A Comparison of Antwerp and Brussels", *Urban Affairs Review*, 50(5): 702~730.
- Wonders, N., and Michalowski, R., 2001, "Bodies, Borders, and Sex Tourism in a Globalized World: A Tale of Two Cities - Amsterdam and Havana", *Social Problems* 48(4): 545~571.
- Zook, M. A., 2000, "The Web of Production: The Economic Geography of Commercial Internet Content Production in the United States". *Environment and Planning*, 32: 411~426.
- Zuckerwise, G., 2012, "Governmentality in Amsterdam's Red Light District", *City*, 16(1~2): 146~157.
- 노컷뉴스, 2013.6.24., "북한 그리고 강남스타일: 냉전이 낳은 강남개발의 역사", <http://www.nocutnews.co.kr/news/1056035>.
- 동아일보, 1969.12.09., "창녀, 주택가 침투", 8면, <http://newslibrary.naver.com>.
- _____, 1984.7.27., "서울25시, '야화'가 유혹하는 '밤의 거리'", 5면, <http://newslibrary.naver.com>.
- _____, 1993.7.20., "대로변 윤락호텔 보기 민망", 19면, <http://newslibrary.naver.com>.
- 서울신문, 2015.6.27., "청량리 588 수명 다한 욕망의 거리 올 연말 지도에서 사라진다", 13면,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627013003>.

원 고 접 수 일 : 2016년 3월 11일

1 차 심 사 완 료 일 : 2016년 6월 3일

최 종 원 고 채 택 일 : 2016년 8월 4일